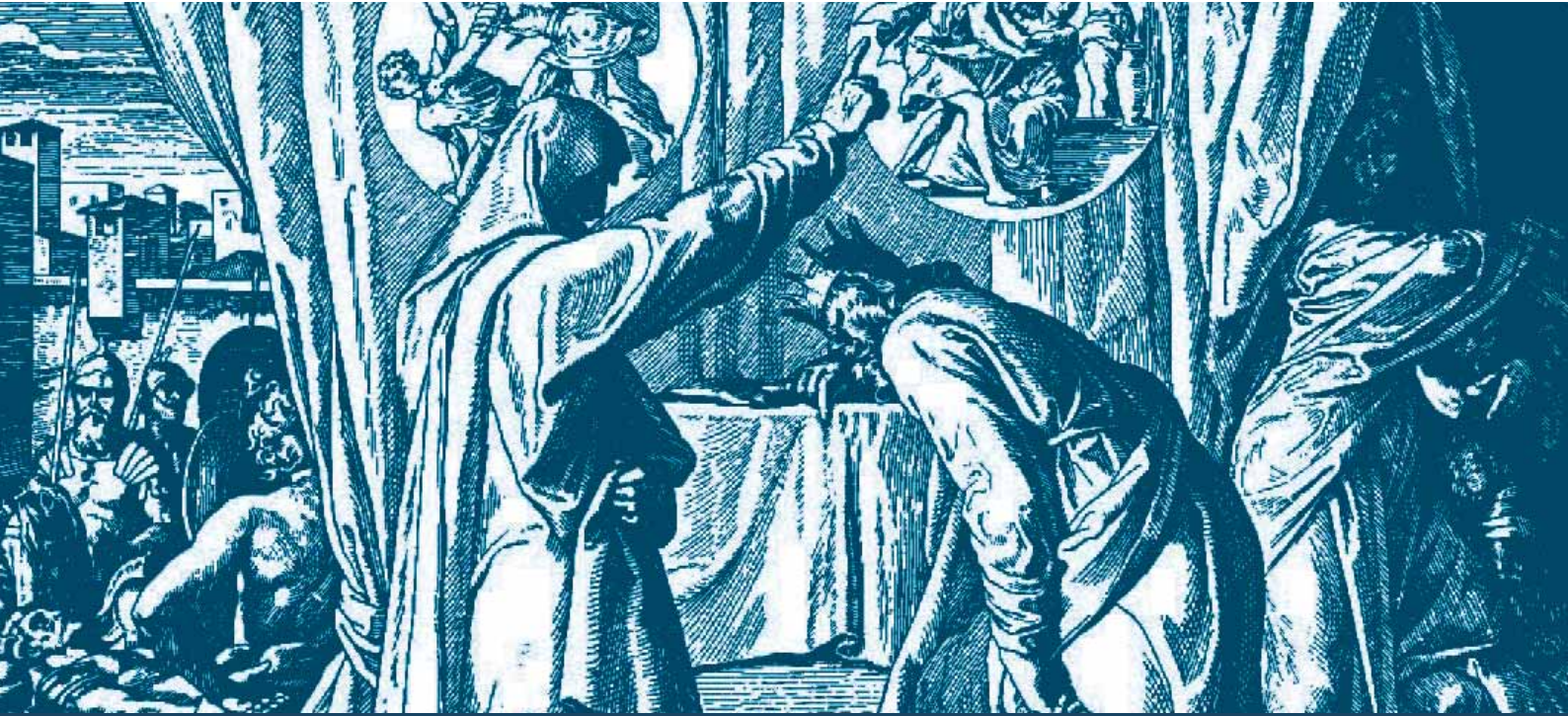


# JEW'S F☆R JESUS™



##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들을 대적하지 말라

이 칼럼에 기록된, 성경 인물들의 설명, 대화, 그리고 회상들은, 모두 저자가 시편 2장, 삼상 16장과 24장, 삼하 5장,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가까이 기대었다 - 수행원들이 일으킬 지도 모르는 시골벽적함을 피하여 더 가까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이다. 더 어린 남자는 걱정을 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듯하였다. 불확실함과 공포가 그의 얼굴에서 나타났다. 그와 반대로, 나이가 든 남자는 왕의 평안함을 갖고 있었다. 그 평안함은,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일들을 견뎠고, 위엄과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왕에게서 나온 것이다. 다윗은 사십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왕국을 넘겨줄 차례이다.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약속한 것처럼 말이다.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늙었고 곧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 사이에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야가 벌써 새로운 정부를 꾸려서 다윗왕의 자리에 대신 앉아 기름부음을 받았다. 어쩌면 형의 야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인생을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윗의 확신은 솔로몬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선지자 나단이 네 형이 아닌 바로 너에게 왕이 되기 위한 기름을 부었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기름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일어나 대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승리할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해라."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경험에서 우러난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여러번 그 이야기들을 들었고, 자기 아버지가 왕위에 오름을 기념하는 시를 아예 외워 버렸다. 엄청난 혼란과 피흘림을 동반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 1-3절)**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어린 젊은이였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조용한 삶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전투에 관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바가 있었다 - 아버지의 양떼를 해치는 야생 동물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거인을 대적하였다. 또한 그는 "안의 짐승"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종종 사울의 어두운 감정들을 그의 음악으로 극복시켰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다윗은 그의 초기 성인 시절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달아나는데 보내야 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다윗을 적처럼 대하였지만, 이새의 아들은 사울에게 대적하기를 거부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무언가 특별함을 알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도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상기시켰다 -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어떤 이는 다윗이, 사울이 전투 중에 죽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를 기대하였겠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사울의 가장 나쁜 것들을 기억할 때, 다윗은 사울의 가장 좋은 것들을 기억하였다.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조나단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한 번 더 받았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시라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 4-6절)

막강한 블레셋 군대에게 맞서는 것은, 다윗에게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 바로 그들은 사울왕을 죽였던 자

신 곳”이라고 부르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연합을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였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으셨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한 승리를 그 날에 거두셨다. 이 이야기와 시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젊은 왕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오래 전에 발견하였던 것을 제일 먼저 배워야 했다: 결코 무력, 재력, 또는 지력이 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보장한다. 솔로몬을 찬양하기로 선택한 이들은 바로 다윗 왕을 찬양한 셈이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당신이 아들을 찬양한다면 바로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셈이다. 당신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존중한다면, 기름부음을 결정하신, 바로 그분을 존중하는 셈이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시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편 2편 10-12절)

하나님께서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고 진정한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진정한 기름부음 받은 자, 구세주, 다윗의 큰 후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전조로서 기름부음을 받았던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든가, 그에게 심판받기 위하여 절을 할 것이다. 바로 왕의 왕이신 그 분, 찬양을 받을 지어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기름부음에 대한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갖는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적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어떤 때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가 기름 부음받은 예수님과 같이 설 때, 어떤 대적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 아니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기로” 결정할 때 -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 -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목적들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장물들은 계속하여 나타나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끔 막았다. 사울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은 유다와 다른 지파들을 서로 갈라놓으려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선언하려고 하였다. 시간이 걸렸지만, 다윗의 평온한 확신은 마침내 결과를 맺었다; 모든 지파들이 연합하였고, 그는 한 번 더 헤브론에서 기름부음을 받았다. 이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하였다. 솔로몬은 또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윗의 승리를 찬양하는 대신에, 각국의 나라들이 분노하였고 사람들을 모반을 꾀하였다 - 바로 시편이 노래한 것처럼 말이다.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약한 사람으로 놀렸다 - 장님과 절름발이로 된 군대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들은 틀렸고, 다윗의 도시인 시온이,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취한 첫 승리의 증거였다. 그 후 더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젊은 왕을 없애버리려고 단단히 결심을 하였다. 이 때 다윗은 기반을 다질 시간도 거의 없을 때였다.

“솔로몬아 기억해라”라고 다윗이 말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앉으셔서 웃으신단다.” 나는 다윗이

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파리 떼처럼 르바임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았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아들이 그에게 기도할 때 너무 좋아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서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7-9절)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기이한 승리 중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바로 그렇게 되었지”라고 다윗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회상하곤 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군대가 내는 소리가 들려. 그 군대가 나무 위들을 행진하는 소리. 우리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흠으

## 선교소식

### 퍼스/ 시드니

시드니의 지방장 밥 멘델스존은, 9월에 서부 호주의 도시인 퍼스에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도착해서 Burswood 카지노 바깥에서 브리어나라는 어느 유대인 여자를 만났고 그녀와 45분 동안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이메일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 조슈아와 데브 또한 밥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밥에게 힘을 주었고, 두 새 신자들의 믿음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세 성경학교가 밥에게서 많은 것들을 듣기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부 호주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것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기쁩니다.

시드니에서 젊은 유대인 청년인 래리와 앤디는 밥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알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제네바/ 스위스

Stephen Pacht가 보고합니다: 20년 이상 선교사로 재직하면서 가장 흥분된 시간을 최근에 맞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독교인 커플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제네바 근처의 주택에서 달마다 이루어지는 유대인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이 모임에 나가고 있었고, 오직 그들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모임의 주최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커플의 사랑과 유대인들에 대한 따뜻한 때문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이 커플의 전도 때문에 모임에서 나누던 주제들이 더 영적인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해에 이 커플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질문을 받았고, 유태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한 토론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그 날 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친 후에, 주최자가 저와 저의 믿음, 그리고 JFJ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최자는 저를 그 다음 번 모임의 강연자로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주최자와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 영적 진리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 런던/ 영국

Yoel Ben David가 보고합니다: 아델과 제가 런던 북쪽 Stanmore에서 집을 보러 다닐 때, 저는 JFJ 티셔츠를 입고 근처 동네 가게에 점심을 먹으러 들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딘이라는 유대인 남자가 저에게로 와서 우리가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단지 그가 제 티셔츠를 보았기 때문

이지요! 한 시간 후(그리고 감자칩 한 접시와 함께), 딘은 복음을 들었고 차후에 한번 더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 텔아비브/ 이스라엘

Oded Cohen의 보고입니다: 저는 아미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가 우리가 보낸 예슈아 책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감사하였고,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아미는 기독교인 자원자들과 함께 호스텔에서 일하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집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미를 궁금하게 만들었지요. 그는 또한, 어떤 랍비가 새신자에게 기독교를 버리게끔 한 선전용 동영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미는 그 뒤에 있던 일을 몰랐습니다 - 그 새신자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그에게 보내주었고, 그것은 진리에 대한 그의 갈망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아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미는 참으로 열려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매일 찾고 있고, 뛰어난 질문들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아미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Bimini Cohen (Oded의 부인)의 보고입니다: 저는 에스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찾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보낸 예슈아 책을 읽을 시간도, 우리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혹시 전화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기쁘게 허락하였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녀는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만났고, 저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알게 되었는지 나누었습니다. 또한 저의 아픈 마음을 그가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도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낙심들과 몸부림들을 나눌 때,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밝은 얼굴과 빛나는 눈동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있었고, 또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일상 속 필요들을 세심하게 채워주시고 맺가없는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몬트리올/ 캐나다

Karl de Souza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2007년에 이디쉬어로 된 예수 동영상을, 몬트리올 보수 유태교 공동체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아직도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유대인 여자가 최근에 저희 지부에 전화를 하였고, 저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몬트리올 중심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시딕 가족에서 태어났지만, 남편 조나단은 좀 더 자유로운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자기들의 공동체에 무언가 기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디쉬어로 된 예수 동영상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동영상을 또 보고, 우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약성경을 조금 읽었습니다(그들은 기초적인 영어를 하지만 이디쉬어가 그들의 모국어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그들은 이디쉬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을 받는데 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연락받는 것에 열려있습니다.

\* Not their real names

JEWS  
FOR  
JESUS





Moishe의 사색들

# 믿음을 더욱 높이며

편집자주: 제가 최근에 Moishe의 짤막한 글을 발견하였는데, 이전에 출판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Moishe의 이 짤막한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70년대초에서 중반 사이에 쓴 것 같군요.

지난 주 월요일, Ceil(Moishe의 부인)이 저에게 플라스틱 연을 사주었습니다. 연에 관해서라면 저는 찰리 브라운과 똑같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요. 그 중 한 문제는 바로, 제가 한 번도 연을 띄우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든 게이트 공원에 가서 설명서대로 연을 조립하였습니다. 연은 가오리 모양으로 생겼었고 크고 무서운 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근한 연을 만들고 싶어서 눈들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연을 낚싯대에 달고 띄웠습니다. 뛰니까 연은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뛰고 있던 터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멈추었고 연은 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연과 같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뛰고 있을 때는 연이 공중에서 날고 있지만, 우리 세상과 같이 바글바글한 곳에서는 뭘 곳 마땅찮기 때문에 항상 뛰고 있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3:8) 성령님께서, 연과 같은 우리 영혼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솟아올 수 있고, 고정되고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는 한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줄 또한 팽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 우리를 높이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연을 가지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항상 바람이 불지요. 저는 뭘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연을 놔주었고, 연은 태양을 향해 날아갔습

니다. 그걸 정면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연줄의 팽팽함을 느꼈기 때문에 연이 하늘 높이 그 곳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은 몇 번이나 갑자기 떨어지곤 했지만, 항상 바람이 다시 연을 날려주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연 때문에 놀랐지만, 비교적 따뜻한 날 해변에 누워있는 아이들은 연에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 자란 남자와 부인들이 연을 날리는 것에 익숙한 가 봅니다.

연을 다시 거두려고 했지만, 단섬유인 연줄이 끊어져버렸습니다. 연은 그레이트 하이웨이를 따라 계속 날아갔고, 우리가 절벽의 맨 끝에 도착해서 해변을 굽어 살필 때는, 이미 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얇은 연줄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연은 반 킬로미터나 날아갔지만 고속도로를 넘어서 온전한 채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만약 연을 날리고 싶다면, 해변을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다음 번에 더 두껍고 긴 연줄을 갖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이 내 짧은 연줄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이 솟아오르고 싶다면, 성령께서 움직이는 곳으로 가야 하고, 당신의 영혼 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하고 긴 연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 JEW FOR JESUS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Vol. 11 No.5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그리고영국에지부를두고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그리고TT로도후원을 받습니다.